

## 직물용어 해설-10

### \* 친칠라(Chinchilla)

모, 면, 리넨, 레이온,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한 직물 면의 잔털이 작은 구슬 형태라던가 잔잔한 파도와 같은 형으로 일어난 촉감이 부드러운 두꺼운 위파일 직물이다. 조직은 위이중직으로써 표리의 조직은 위주자라던가 능직 등, 위사의 부출을 길게 한다. 경사에는 면사라던가 아마사라던가 강하고 조강한 소모사를 사용한다.

두꺼운 스펀지와 같은 방모 오버코트 감으로서 2중직으로 만들며 경사는 1올 또는 2올로 하고 위사는 한 올에서 4올이 들어 간 것을 말한다. 위사에는 가늘고 짧은 양모로부터 방출한 방모사를 사용한다. 제직 후 축융하고 기모한다. 다음에 옥라사(친칠라)마무리를 한다. 직물을 2매의 마찰판 사이에 펴서 마찰 판을 수평으로 복잡하게 움직여 진동으로 직물면의 문질러 잔털을 일으켜 작은 구슬 모양이나 잔잔한 파도와 같은 것이 직물면을 덮도록 한다. 후염도 선염도 있다. 영국 이름인 chinchilla는 이러한 종류의 직물의 원산지인 스페인의 도시 친칠라의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또 이 지방에서는 친칠라라고 하는 모피 동물이 살고 있어 이것의 모피에 근사시켜 마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 오버, 제복 등으로 사용한다.

### \* 카르제(커어지, Kersey)

모,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비닐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 데 주로 체비오트 양모라던가 잡종 양모로부터 방출한 방모사를 사용하여 2/2 사문직으로써 제직한 직물이다. 충분히 축융한 후 기모하고 짧게 전모 한다. 기모한 잔털로써 바닥은 숨겨져 있다. 직물면에는 두드러진 광택이 있다. 마무리는 비버 마무리이다. 멜턴에 근사한 외관이지만 멜턴보다 광택이 강하다. 비버보다도 축융도는 높고 털은 약간 짧고 광택이 강하다. 비버보다도 축융도는 높고 털은 약간 짧고 광택이 강하다. 색조는 감색, 차색, 흑색의 계통도 많다. 면직 카르제는 경사

에 40's 정도의 목사, 위사에 20's 정도의 염색사를 사용하여 2/2 우능으로 제작한다. 직물면에는 서리 내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정도의 두께의 우능의 무지물을 카르제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면 카르제는 면 카바트에 근사한 것이지만 카바트가 경사에 단사 목사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면 카르제는 목사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영국의 샷포크 주의 Kersey의 지명을 따라 붙인 것이다. 군인 군속의 제복, 오버 등으로 사용하고 면은 운동복, 슬랙스, 코트, 작업복 등으로 사용한다.

\* 카바트(Covert)

모, 면,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닐론, 아크릴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경사에 목사(杻絲)라던가 롱사(隴絲)를 사용하여 위사에 쌍사 또는 단사의 농색 염색사를 타입하여 제작한다. 직물면에 서리가 내려 보인다. 모직 카바트는 경위사 모두 소모사를 사용한다. 방모사를 사용한 것도 있다. 사문직의 경사선은 통상 좌하로부터 우상으로 달리는 급사문이다. 5~16매의 경주자로 제작한 것도 있다. 사문직의 경사선은 통상 좌하로부터 우상으로 달리는 급사문이다. 5~16매의 경주자로 제작한 것도 있다. 모두 조직은 치밀하고 경사 밀도는 위사의 배정도로 한다. 직물 면은 클리어 커트 마무리로 한다. 촉감은 딱딱하고 약간 광택이 있다. 바닥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이 있다. 화합섬 카바트로는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혼방이 많다. 폴리에스터 혼방이나 아크릴 혼방도 많다. 모 카바트를 모방한 태로 마무리한다. 면 카바트는 통상 단사 목사를 경사로 사용한다. 즉 표백사와 염색사 또는 이색의 2올의 조방사를 합하여 정방한 면사를 사용한다. 사문직의 능선은 보통 우하로부터 좌상으로 달린다. 마찬가지로 서리 내림 효과를 나타낸 능직 면직물로는 카르제(Kersey)가 있다. 면 카르제는 목사를 사용한다. 서리 내림의 효과를 가진 실은 주로 다음의 4종류이다.

롱사(隴絲): 원면 염색한 면화와 표백 면화를 혼방하여 방직한 단사

단사목(單絲杻): 정방할 때에 색이 다른 2올의 조방사를 정방기에서 방직한 실

목사(杻絲) : 단순히 목이라고 한다. 색이 다른 2올의 단사를 나란히 배열하여 꼬임을 준 쌍사이다.

색 네프사 : 소면기라던가 연조 등의 방적 공정 중에 색이 다른 섬유를 혼입하여 곳곳에 색네프를 부착시킨 단사

용도는 모를 사용한 것은 톱코트, 여성용 코트, 슈트 등으로 사용하고 면을 사용한 것은 스포츠웨어, 드레스, 작업복, 운동화, 제복 등으로 사용한다.

\* 캐벌리(Cavalry twill elastique)

금능직의 두둑이 있는 모직물로써 탄력이 있어 승마복, 스키복, 운동복 등으로 사용한다.

\* 캔툰(Cantoon)

① 강한 내구성이 있는 면포로 아름다운 사선이 나타나는 능직이며 경사는 2합사, 위사는 굵은 단사를 사용한다. 즉 Ne 22/2's×Ne 20's이고 밀도는 60×320올/2.54cm, 경사 6올, 위사 12올로 완전 조직을 나타내며 뒷면은 기모한다. 때에 따라서  $\frac{3}{3}$ 의 사능(diagonal)으로 많은 위사를 넣을 때도 있으며 용도는 승마복, 등산복 등이다.

② 중국에서는 평직의 면포를 가리키며 딱딱한 풀먹이기로 청색 또는 자색으로 염색하여 짠 것을 말하고 경사 Ne 52's, 위사 Ne 44's, 밀도 56×56/2.54cm 정도이다.

③ 강한 면포로 표면에는 코드가 나타나고 뒷면은 주자직으로 한 것으로 값싼 커튼 감으로 이용된다.

\* 코듀로이(Corduroy)

면, 레이온,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여 골덴이라고 한다. 위모 벨로드직으로 제작한다. 경사와 지위사 및 모위사로써 제작한다. 하나의 지위사와 다음의 지위사의 사이에는 2올이던지 4올의 모위사를 타입한다. 이것은 5올이라던가 7올 또는 그 이상의 경사의 위를 부출할 때마다 경사와 조직 바닥 중에 제작되어 진다. 이러한 모위사와 경사의 조직점은 직선상으로 경사의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므로 제작 후 모위사의 부출된 부분의 중앙부에서 절개하면 모위사는 그러한 직선상의 조직점을 지점으로 하여 잔털을 세우고 직물면 전체에는 경사 방향으로 달리는 잔털의 이랑이 나타난다. 바닥은 평직이라던지 능직으로 조직된다.

코듀로이의 부출한 모위사를 절단하는 방법으로는 2종이 있다. 하나는 칼이 붙은 원판을 많은 축에 붙여 각 원판의 위치를 부출 위사의 절단 개소에 맞춘다. 칼의 밑으로 원단을 통과시켜 그 즉시 원판으로써 부출 위사를 끊어 낸다. 원판 사이의 간격은 이랑과 이랑의 간격과 같게 한다. 또 하나는 칼을 부출 위사의 중앙을 자르는 위치에 붙여 일정한 길이 만큼 경사 방향으로 달리는 부출 위사를 절단한다. 하나의 이랑의 절단이 끝나면 다음의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또 경사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다음의 부출 위사를 절개한다. 이하 순차로 이것을 계속한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색조는 다갈, 진한 녹색, 거무스름한 적갈색, 황색 등이 많다. 통상 천의 이면을 가볍게 기모한다. 이랑 폭은 10mm 정도로부터 1.2mm정도까지 폭넓게 여러 가지이다. 코듀로이는 튼튼하고 두꺼우며 울이 많은 직물으로써 착용감은 따뜻하다. Corduroy는 프랑스어의 corde du roi(왕의 밧이랑의 의미)로부터 유래하였다. 드레스, 재킷, 스커트, 슬랙스, 바지, 운동복, 사냥복, 항공복, 실내 장식, 의자 덮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 \* 코드직(Cord Suiting)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터, 비닐론, 면 등의 섬유를 사용하는데 미국 제품을 모방하여 제작되기 시작한 남자용 하복지이다. 남색 농감색이라던가 다갈색 염색 등의 지경사와 표백 위사를 평직으로 제작해 낸 지조직으로써 백색의 굵은 울을 2올 내지 수 올 인접 배열하여 짚 목(柵)의 바닥에 백색 위 이랑을 나타낸 직물이다. 촉감이 딱딱하고 까칠까칠하다. 조직점은 치밀하다. 줄무늬 비율과 배색을 바꾸면 여성용으로도 된다. 바닥 경사, 경사 이랑, 위사 모두 면사를 사용한 것도 있으나 레이온, 아세테이트, 나일론 등을 여러 가지로 조합시킨 교직 제품도 있다. 용도로는 여름철 남자용 바지, 상의, 여성용 투피스 등이다.

\* 코르셋 크레이프(Corset Crepe) : 영국에서 쓰이는 용어으로써 강한 면직물이고 쌍사를 사용한 작은 크레이프 조직으로 된 것. 직물은 포염으로 하여 핑크색, 슬레이트색, 헬리오 등으로 염색한다. 보통의 규격은 경사에 Ne32's의 쌍사를, 위사에 Ne 24's 쌍사, 92×86올/2.54cm 밀도로 한 것

\* 크라쉬(Crush)

면, 리넨, 레이온 등의 섬유를 사용하고 굵은 울의 제직사로써 약간 성긴 밀도로써 제직한 것으로 면 오스나버그의 태와 근사하다. 제직사로써 섬도가 가지런한 것만을 사용하는 것과 섬유가 불규칙한 것을 혼용하는 것이 있다. 다듬이질 마무리를 하던가 기타의 방법으로 실을 두들겨 부드럽게 하여 직물 면을 평활히 하여 광택을 갖게 한다. 비교적 울이 많은 것은 부드러운 감연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흡수성이 있다. 일본에서는 리넨에 한하고 있고 크라쉬 리넨이라고 한다. 20~30's(마번수)를 사용한다. 용도로는 울이 많은 것은 테이블 덮개, 가구 덮개 등으로 울이 성긴 것은 드레스, 남자 하복지 등으로 사용한다.

\* 크레베네트(Crevenette)

이색 연사 또는 선염사를 사용한 개버딘 또는 이와 비슷한 직물.

\* 크레시(Crash)

아마사를 면사 기준으로 30's를 사용하고 함께 밀도 180올/5cm 정도인 평직물로써 셔츠, 양복, 테이블보 등으로 사용한다.

\* 크레이프(Crepe)

지리멘이라고 하며 경사에 생사 위사에 강연의 생사를 사용하여 정련에 의하여 주름살을 나타낸 직물이다. 원래는 견직물이었으나 지금은 레이온, 아세테이트,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교직물도 상당히 많다. 지리멘의 제조법을 경사로 설명하면 경위사에 14~21D의 생사 여러 올을 합한 것으로 위사에는 2,000~3,000T/M 정도의 꼬임을 S, Z로 각각 주어 S연 2올, Z연 2올씩을 교대로 배열하여 제직한 후 온탕 처리하면 주름 효과가 나타난다. 크레이프라는 이름의 직물이 대단히 많은데 크레이프(Crepe, Crape)는 강연사를 사용하여 직물면에 주름을 나타낸 축직물을 지칭하며 대단히 넓은 범위의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지리멘에 대하여 말하면 협의의 지리멘으로 생사, Rayon, Polyester 등의 강연사를 사용하여 주름을 낸 직물을 총칭하는데 광의의 지리멘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 크레이프 조직(Crepe weave) : 조직에 따라 직물 면에 크레이프의 외관을 나타낸 것. 직물면에 경사가 펴서 된 작은 점을 마치 모래를 뿌려 놓은 것처럼 나타

내어 크레이프의 주름과 같은 외관을 갖는 조직을 말한다. 의복감, 띠감, 장식용 깃감, 여성 옷감, 안감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조직이 복잡하므로 도비기로 제작된다.

\* 크레이프 드 신(Crepe de Chine, C.D.C)

견,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의 섬유를 사용하며 약칭하여 드 신 이라고도 하고 프랑스 지리멘이라고도 한다. 경사에 무연사를 위사에 좌연과 우연의 강연사를 2올씩 교호히 타입한 평직 지리멘의 일종으로 플랫 크레이프나 팔레스 크레이프와 비슷하다. 제작 후 정련하면 가는 곱슬 주름이 생긴다. 그러한 곱슬 주름은 플랫 크레이프보다 약간 눈에 띄지만 내수 쪽의 평측면에 비하면 가늘다. 경사 밀도가 다소 성글고 위사의 꼬임 수가 많아 주름 효과가 눈에 뜨게 된다. 원래는 모두 견직물이었다. 견의 드 신의 위사의 꼬임 수는 위사의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700~3,500T/M이다. 같은 정도의 굵기의 위사에 걸린 꼬임 회수를 플랫 크레이프와 비교하면 크레이프 드 신 쪽이 200T/M 정도 많게 되어 있다. 마무리 밀도는 플랫 크레이프보다 적다. 37.5~112.5g 정도로 만들어진다. 가는 데니어의 큐프라라던가 나일론을 사용한 것도 있다. 표백, 무지염 또는 날염하여 사용한다. 드레스, 블라우스, 커튼, 액세서리 등으로 사용하며 Crepe de Chine의 Chinesms 중국 고대의 진에 어원을 두고 중국을 의미한다. 18세기 초에 프랑스의 리옹(Lyon)에서 지나 측면으로 모방하여 제작하였을 때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된다.

\* 크레톤(Cretonne)

면, 마, 레이온 등을 사용한 평직, 사자직, 주자직, 이지직의 조직으로 제작한 것이다. 날염면포의 일종이다. 이것에 사용되는 원단은 평직, 사자직 또는 주자직 때로는 이지직으로 제작한 것으로써 직물 면에 요철이 있는 두꺼운 것이다. 날염 무늬는 꽃 모양 등이 많고 색상은 경사(更絲)보다 밝다. 크레톤에는 경사 날염을 시행한 것이 있다. 샤도우 크레톤(Shadow cretonne)이라고 부른다. 경사가 빔으로부터 종광에 이르는 사이에 픽상으로 경사가 배열된 채로의 상태에서 날염을 점차로 시행하여 짜 나아가는 것이다. 위사에는 표백사라던가 한가지 색으로 염색한

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된 모양은 윤곽이 부드럽고 희미하게 보인다. 꼭 해직한 듯한 맛이 있다. 경사에는 날염 호가 베어 있기 때문에 제작된 천에는 표리 모두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표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크레톤은 원래 경사에 대마사를 위사에 아마사를 사용하여 제작한 튼튼한 직물이었다. 프랑스의 크레톤(Creton)이 주산지인데 그 지명을 따서 직물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용도는 커튼, 가구 덮개, 해수욕복, 창걸이 등으로 사용한다.